

여야 평행선 대치...연말 정국 '안갯속'

與, 국민의당과 공조 모색
우원식 "한국당 약속 지켜야"
한국당, 청와대 앞 규탄대회
국민의당 "한국당 패싱 안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를 배경으로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올해가 시한인 '일몰 민생법'의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데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역시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는 만큼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일부 야당과 연대를 통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연내 본회의를 전격 개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물론 캐스팅보트를 쥐는 국민의당이 개헌특위 연장 없는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이고, 아직은 한국당을 배제한 안전처리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며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여론몰이에 주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일방 무산시킨 데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선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해 민생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이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이 역시 안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1월 임시국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2월 설 연휴가 있으므로 1월 중순부터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이다. 반면, 한국당은 대어 투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국회 공정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정치로서 국회를 짓밟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을 견여한,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개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연내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을 동시에 비판하며 두 정당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국민의당에 의한 본회의 개최' 방안 에 대해서는 "한국당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방선거 당시 개헌은 당초 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방선거 당시 개헌은 당초 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

이처럼 3당으로서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최근 통합론을 둘러싼 내용 탓에 협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원호 기자 khk@kwangju.co.kr

국민의당, 이번에도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양당 동시 견제
당 내홍에 협상력 저하 우려도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면서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에 이어 이번에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법안과 재정 예산안 등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

치개혁 특위 논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다. 이는 협상의 열쇠를 쥐는 3당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구제 개헌에서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우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주장에는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논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당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개헌논의

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제1야당 '패싱' 주장은 개헌논의 무산에 대비한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집권여당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을 상대로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국민의당에는 도와달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헌 전환을 위한 타개책을 내놓아야 할 곳도 민주당"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협치가 정부 여당의 필요에 따라 놀러가는 호출 벨이 되고 있다"며 "여당은

靑 "친서 전달위해 UAE 방문" 한병도 수석 국회 방문... "정치권 요청시 설명할 의사 있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수석은 이날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를 예방하러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의혹이 생선되고, 또 확대 재생산돼서 정치적 이슈처럼 불거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은 이어 "지금 대법관 후보자 두 분과 감사원장 후보자, 32건의 민생법안이 걸려있다"며 "급한 것은 어떤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가 아니고 대법관·감사원장 공백 상태 해소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라는 물음에 "아직 제안받은 적이 없고, 제안이 온다면 한 번 이야기해보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지만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는 야당의 요청이 있으면 'UAE의

혹'과 관련해 외교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야당 지도부와 비공개 대화를 통해 궁금증 해소에 나설 여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 야당 지도부와 기자들에게 UAE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방어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한 까닭은 그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일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 UAE 왕가 비자금 관련설, 리베이트 마찰설, 한국업체 공사 대금 체불설 등 여러 종류의 의혹과 가설, 추론으로 다양해진 상황이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UAE에 자체 의원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내지도부가 UAE 의혹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국회 의원 모임이 발족한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 발족을 공식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안과 개헌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임의 간사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국

민의당 김성식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이날 초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13일 심상정 의원 주도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면서 모임 발족을 준비해왔다. 현재까지 2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크다고 모임 측은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의원 22명 정치개혁 모임 발족
한국당 불참... 선거제 개혁·개헌 단일안 논의

민중이 있는 대학·민중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과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